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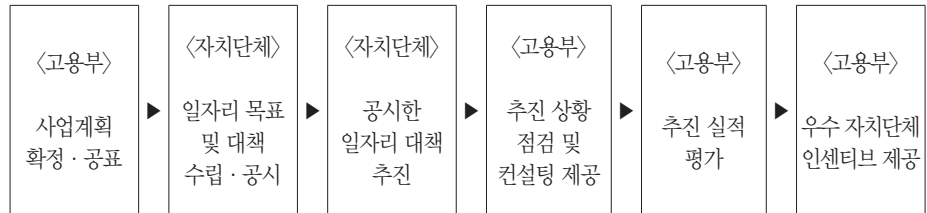
# 일자리

## I. 일자리 정책

### □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발표하고, 중앙정부는 그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방안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실시됨.
  -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특히 지자체장이 일자리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일자리 친화적인 지방행정을 펼치도록 유도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 대책과 그 대책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를 공시함.
  -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개발하되 ▲전략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대책 ▲미스매치 해소 대책 ▲직업훈련 대책 ▲일자리 인프라 구축 ▲지역 유관 기관 협력 방안 등으로 범주화함.

### ○ 업무 추진 절차



- 참여 현황: 2012년 4월 현재 전체 244개 자치단체의 95.9%인 234개 참여 (광역 15, 기초 219)

구분	계	광역시·도	기초시	기초군	자치구
자치단체 총수	244	16	74	85	69
참여자치단체	234	15	72	83	64
(%)	95.9	93.8	97.3	98.8	92.7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실시

-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비영리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공모형 사업임.
-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된 정책만으로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 분권형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6년부터 실시됨.

○ 사업예산: 2012년 예산 318억 원

- 시도 내 경쟁방식 155억 원, 시도 간 경쟁방식 123억 원, 일자리 공시제 연계 사업비 32억 원, 기타 운영비 8억 원(인프라 확충 5억 원, 사업운영비 3억 원)

○ 사업 내용

- 주관 기관: 지방고용노동 관서가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사업공모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
- 참여 대상: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내 노사단체, 연구기관, 대학교,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이들 간의 컨소시엄
- 사업 분야
  - 포럼사업: 지역 내 고용 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의 고용이슈를 발굴·공론화시키고, 지역고용에 대하여 지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
  - 특화사업: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 연구사업: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 분석 및 대안 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사업
  - 패키지사업: 위의 포럼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중 2개 이상이 결합한 사업(특화사업은 반드시 포함)
- **중소기업청, 2012년 청년창업 지원 대책 발표(2012년 2월 15일)**
- 중소기업청은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2012년 청년창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음.
  - 청년창업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2년 청년창업 관련 예산은 1조 5,8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29억 원이 증가한 규모임.
    - cf. 전체 창업 예산의 9% 수준
    - 청년창업자금 및 엔젤투자 매칭펀드 신설, 창업기업 전용 R&D 확대, 청년창업 특례보증 증액, 창업 저변 확대 등 보조·출연 사업 수행
    - 청년창업사관학교(1→4개), 창업선도대학(15→18개교) 확대, 「선도기업 연계 청년창업 육성 사업」 추진, 「청년창업 협의회」 운영 등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연구기관·선도기업의 지원 체제 운영
    -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20→60개 팀), 금년 중 글로벌 창업 중점 지원 대학(글로벌 창업 특화 대학)을 시범 운영할 계획
    - 정책자금 지원 시 창업 초기 기업 등에 대해 연대보증 대신 일반보증 적용 및 가산금리 부담 시 연대보증 면제 등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쉽게 재도전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개선
- **고용노동부, 「2012년 창조캠퍼스 지원 대학」 선정 발표(2012년 2월 20일)**
- 고용부는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심사를 거쳐 24개 대학(특성화교 1개교 포함)을 창조캠퍼스 지원 대학으로 선정하였음.

※ 2011년에 비해 지원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됨.

○ 「창조캠퍼스 지원 사업」은 대학생과 청년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현실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을 통해 이들의 직업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멘토링, 자금·공간 등을 지원함.

- 교육·멘토링: 해당 아이디어 분야의 전공 교수 및 민간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과 창직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 자금·공간: 팀당 600만 원 내외의 지원금과 PC, 인터넷 등 각종 기자재가 구축된 스마트 워크 센터 개념의 창직 작업공간 제공
  - 대학별로 학점 인정, 장학금 혜택 등의 인센티브 제공
- cf. 창조캠퍼스 홈페이지: [www.creativecampus.kr](http://www.creativecampus.kr)

□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제2의 중동북」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력 진출 및 확충 방안 마련(2012년 2월 24일)**

○ 고용부는 중동지역의 건설·의료·방위산업 등 전(全) 분야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청년들이 이 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동지역 전문인력 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중동지역의 전문인력 수요 발굴
  - 기존 건설·항공승무원 위주에서 자원개발, 의료, 경영·금융 등 직종을 다양화하고, 직종별 전문인력 DB를 구축하여 직종별 맞춤형 취업 지원

표 1. 중동지역 유망직종 및 선호직종

구분	분야	직종
유망 직종	자원개발	엔지니어링, 플랜트, 원전, 에너지 등
	의료	치과기공사, 물리 치료사, 헬스케어, 의료코디네이터, 의료관광, 의료기기 등
	경영·금융	기업가치 평가전문가, 경영컨설턴트, 브랜드관리사, 펀드매니저, 금융자산운용가 등
선호 직종	건설	토목·건축 감리 기술자, 플랜트 기계 설치공, 전기기사
	원전·에너지	시공관리, 설계, 연료제조, 정비 등
	IT	시스템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개발자, 보안전문가 등
	항공	공단, 해외 리크루트사 간 채용박람회 등 취업연계 추진
	의료	간호(간호 분야 자격 상호 인정 추진을 통해 진출 확대)
	HRD	기능경기 전문가, 직업훈련 강사요원, 행정지원인력 등
	한류서비스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한식요리 전문가 등

자료: 고용노동부(2012), 중동지역 전문인력 진출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함.

- 중동지역 주재 공관, KOTRA 무역관 등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 현지 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구인기업을 개척
-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중동지역 국가별·산업별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 선정하고, 인턴 참가자를 우선적으로 취업과 연계
  - 단기적으로 글로벌 청년취업(GE4U), 해외취업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전문가 육성, 중동지역 관련 교육 지원, 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교류 확대 등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
- 국토부는 청년층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대졸자 대상의 단기 실무교육 양성 규모 확대, 전문경력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직자에 대한 전문교육 확대, 청년층의 해외건설현장 근무를 위한 병역특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건설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함.
- 청년층의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 실무교육 양성규모를 2011년 2,500명에서 2012년 3,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임.

- 대학 마지막 1학기를 해외건설 실무교육으로 대체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실무학기제」를 도입하여 졸업과 동시에 해외건설업체 취업 유도
- 전문경력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직자에 대한 전문교육 확대
  - 「맞춤형 6개월 전문가 과정」 확대(2개→5개 대학원), 교육기관별 전문과정(발전, 석유화학, 계약·리스크관리 등)을 특화
  - 핵심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포스텍 엔지니어링 대학원 개원

□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 실시

-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중장년 미취업자에게 취업상담, 직업훈련, 집중 알선 등 최대 9개월간 개인별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를 2012년 3월 2일부터 실시함.
- 참여 대상
  - 40~64세의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① 실업급여 수급 종료 1개월 이후 미취업자, ②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또는 ③ 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임.
- 지원 내용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기간	1개월	최대 6개월	2개월
지원 내용	진단·의욕증진·경로설정	직업능력·직장적응력 향상	취업알선
세부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상담,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li> <li>• 참여수당 최대 20만 원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일배움카드 200만 원, 자비부담 면제</li> <li>• 훈련참여시 6개월간, 월 최대 31만 6천 원 지급(취업활동수당 20만 원, 훈련장려금 11만 6천 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처 알선, 동행면접 등 실시</li> </ul>

□ 「50+ 새일터 적응지원 사업」 시행

-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중소기업 현장연수를 통해 새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 「50+ 새일터 적응지원 사업」을 3월 21일부터 시행함.
- 구직자는 중소기업에서 직접 현장체험을 한 뒤 재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중소기업으로서는 베이비부머 퇴직자 등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인재를 활용할 수 있음.

○ 참여 대상

- 구직자: ①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 ② 고용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등의 취업지원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3개월이 지나도 취업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
- 기업: 500인 이하 제조업이나 300인 이하 건설업 등과 같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참여 인원은 2천 명이며, 참여자에게는 1~3개월 동안 최대 월 4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됨.

- 일 8시간, 주 20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당 제조업은 5,000원, 비제조업은 4,600원의 참여수당 지급

□ 「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

- 정부는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맘껏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고용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 (2012년 4월 17일)함.

○ 종합대책 세부 내용

- 현재 취업성공패키지·희망리본 사업 등에 참여하여 기초수급자에서 벗어

- 난 경우에만 인정되던 의료·교육 급여 2년 유예가 근로·사업 소득으로 인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까지로 확대 추진
-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강화시켜 장애학생의 취업역량을 제고
  - ‘Work together 센터’를 설치하여 고용·교육·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고용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충
  - 고용창출효과가 큰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하여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 추진



## II. 일자리 통계

### □ 2012년 3월 고용률은 58.6%,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 대비 고용 현황 개선

- 2012년 3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 동월 대비 변화 없음
  - 경제활동인구는 2,521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만 2천 명 증가
- 2012년 3월 고용률은 58.6%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
  - 취업자는 2,426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만 9천 명 증가
-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 대비 0.6%p 하락
  - 실업자는 94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 8천 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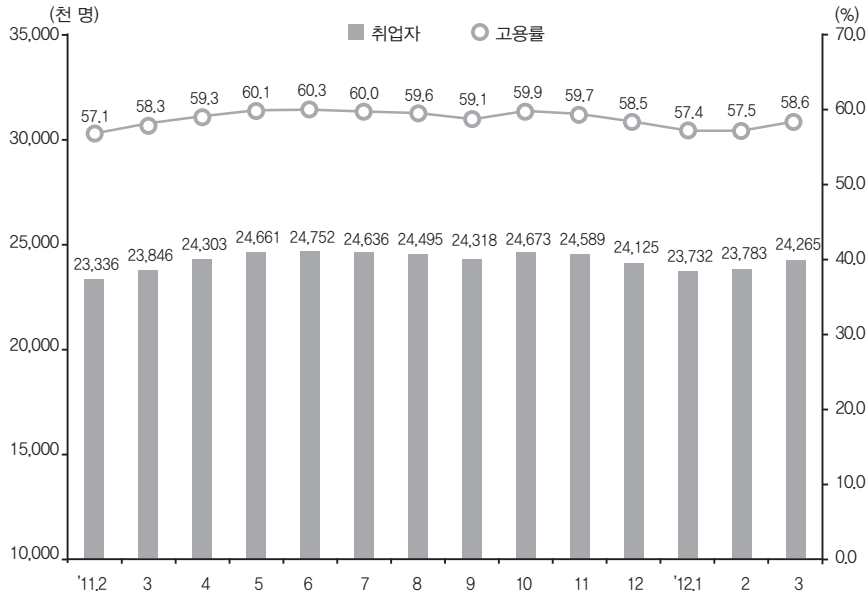
표 2. 주요 고용 지표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1.3		2012.2		2012.3		
		증감률		증감률		증감	증감률
15세 이상 인구	40,918	1.1	41,369	1.2	41,415	497	1.2
- 경제활동인구	24,918	2.2	24,825	1.6	25,210	292	1.2
참가율	60.9		60.0		60.9	0.0p	
· 취업자	23,846	2	23,783	1.9	24,265	419	1.8
고용률	58.3		57.5		58.6	0.3p	
· 실업자	1,073	6.8	1,042	-4.8	945	-128	-11.9
실업률	4.3		4.2		3.7	-0.6p	
- 비경제활동인구	15,999	-0.5	16,544	0.6	16,205	20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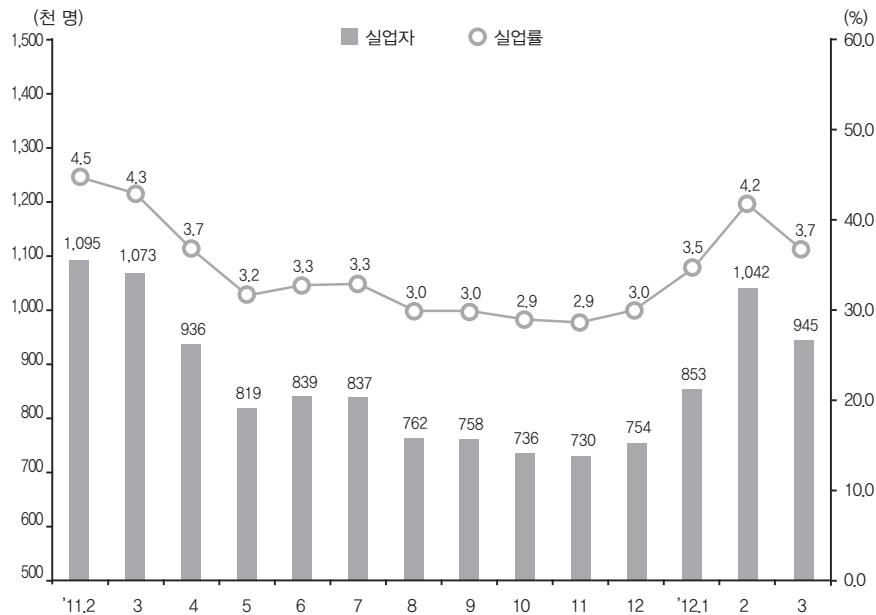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2.4), 「2012년 3월 고용동향」.

그림 1. 취업자와 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2012.4), 「2012년 3월 고용동향」.

그림 2. 실업자와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2012.4), 「2012년 3월 고용동향」.

□ 남·여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와 고용률은 증가하였으나, 여자의 경우가 보다 뚜렷

- 성별 고용률은 남자 70.1%, 여자 47.6%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1%p, 0.6%p 상승
  - 취업자는 남자의 경우 1,419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 8천 명이 증가하였고, 여자는 1,007만 5천 명으로 24만 1천 명 증가
- 연령별 고용률은 10대와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상승
  - 취업자는 10대에서 1만 1천 명, 30대에서 9만 6천 명이 감소하였고, 이외의 연령층에서는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50대 29만 3천 명, 60대 16만 명 증가

표 3. 취업자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1.3		2012.2		2012.3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증감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전체		23,846	58.3	23,783	57.5	24,265	58.6	419	0.3p
성별	남자	14,012	70.0	14,018	69.3	14,190	70.1	178	0.1p
	여자	9,834	47.0	9,764	46.2	10,075	47.6	241	0.6p
연령	15~29세	3,793	39.4	3,862	40.5	3,818	40.1	25	0.7p
	-15~19세	212	6.3	241	7.3	201	6.1	-11	-0.2p
	-20~29세	3,581	57.1	3,621	58.1	3,617	58.1	36	1.0p
	30~39세	5,783	71.9	5,686	71.6	5,687	71.7	-96	-0.2p
	40~49세	6,562	77.9	6,509	77.1	6,597	78.2	35	0.3p
	50~59세	4,958	70.8	5,143	70.4	5,251	71.7	293	0.9p
학력	60세 이상	2,751	35.2	2,584	31.7	2,911	35.6	160	0.4p
	중졸 이하	4,801	39.2	4,315	35.9	4,688	38.8	-113	-0.4p
	고졸	9,503	60.4	9,566	59.6	9,507	60.0	4	-0.4p
	전문대졸	3,007	73.0	3,174	73.2	3,240	73.6	233	0.6p
	대졸 이상	6,535	74.3	6,728	74.8	6,830	75.2	295	0.9p

자료: 통계청(2012.4), 「2012년 3월 고용동향」.

□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일용근로자는 감소

- 임금근로자는 1,742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 비임금근로자는 684만 4천 명으로 0.9% 증가
  - 상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12.3% 감소
  -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 5천 명, 2.2% 증가

표 4.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취업시간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2011.3		2012.2		2012.3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23,846	100.0	23,783	100.0	24,265	100.0	419	1.8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17,065	71.6	17,225	72.4	17,421	71.8	356	2.1
	-상용근로자	10,543	44.2	10,807	45.4	10,899	44.9	356	3.4
	-임시근로자	4,782	20.1	4,877	20.5	4,997	20.6	215	4.5
	-일용근로자	1,740	7.3	1,542	6.5	1,525	6.3	-215	-12.3
	비임금근로자	6,781	28.4	6,558	27.6	6,844	28.2	63	0.9
	-자영업자	5,554	23.3	5,492	23.1	5,678	23.4	125	2.2
	-무급가족 종사자	1,227	5.1	1,066	4.5	1,166	4.8	-62	-5.0
취업 시간 대별	36시간 미만	3,236	13.6	3,346	14.1	3,332	13.7	97	3.0
	36시간 이상	20,323	85.2	19,884	83.6	20,611	84.9	287	1.4
	일시휴직	287	1.2	553	2.3	322	1.3	35	12.3

자료: 통계청(2012.4), 『2012년 3월 고용동향』.

□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와 고용률 모두 증가

- 연령별 고용률 증가의 효과는 25~29세가 2.3%p 증가로 가장 뚜렷. 20~24세의 경우 0.8%p 증가에 불과
  - 연령별 취업자 수는 20~24세가 전년 동월 대비 7만 명 증가한 반면 15~19세와 25~29세는 모두 감소하여 취업자 증가는 20~24세 취업자 수 증가에 기인

-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의 취업자 수 증가와 고용률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남. 남자의 경우 취업자 수는 4천 명, 고용률 증가는 0.3%p에 그친 반면, 여자의 경우 취업자 수는 2만 1천 명, 고용률은 1%p 증가
- 학력별로는 고졸자의 경우 취업자 수가 3만 5천 명이 감소하고 고용률 또한 0.2%p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시장 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 반면, 초대졸자는 취업자 수가 4만 명이 증가하였고, 고용률 또한 전년 동월 대비 1.6%p 증가. 대졸자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보다는 고용률 증가 효과가 뚜렷해서 전년 동월 대비 2.1%p 증가

표 5. 청년층 취업자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1.3		2012.2		2012.3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증감		
							취업자	고용률	
전체	3,793	39.4	3,862	40.5	3,818	40.1	26	0.7p	
연령별	15~19세	212	6.3	241	7.3	201	6.1	-10	-0.2p
	20~24세	1,122	42.2	1,212	43.8	1,192	43.0	70	0.8p
	25~29세	2,459	68.0	2,409	69.5	2,425	70.3	-34	2.3p
성별	남자	1,790	37.8	1,867	39.6	1,795	38.1	4	0.3p
	여자	2,002	41.0	1,995	41.3	2,024	42.0	21	1.0p
학력	중졸 이하	74	3.0	89	3.8	86	3.5	11	0.5p
	고졸	1,518	37.3	1,625	38.5	1,483	37.1	-35	-0.2p
	전문대졸	1,015	73.4	1,011	74.6	1,055	75.0	40	1.6p
	대졸 이상	1,185	68.7	1,137	69.4	1,194	70.8	9	2.1p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명(0.6%) 증가하였고, 비임금근로자도 6천 명(2.3%) 증가.
  - 일용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한 반면, 자영업자는 8.6% 증가

표 6. 청년층(15~29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취업시간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2011.3		2012.2		2012.3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3,793	100.0	3,862	100.0	3,818	100.0	26	0.7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3,531	93.1	3,600	93.2	3,551	93.0	20	0.6
	-상용근로자	2,174	57.3	2,058	53.3	2,142	56.1	-31	-1.5
	-임시근로자	1,080	28.5	1,220	31.6	1,162	30.4	82	7.0
	-일용근로자	277	7.3	322	8.4	247	6.5	-31	-12.4
	비임금근로자	262	6.9	262	6.8	268	7.0	6	2.3
	-자영업자	179	4.7	189	4.9	196	5.1	17	8.6
	-무급가족 종사자	82	2.2	72	1.9	72	1.9	-11	-14.9
취업 시간 대별	36시간 미만	534	14.1	569	14.7	545	14.3	11	2.0
	36시간 이상	3,221	84.9	3,237	83.8	3,236	84.7	15	0.5
	일시휴직	38	1.0	56	1.5	38	1.0	-1	-1.4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고령층(55~79세)은 취업자와 고용률 모두 증가

- 고령층 취업자는 498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 1천 명, 고용률 0.7%p 증가
- 고용률의 경우 성별로는 여자가 전년 동월 대비 1.4%p,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이 2.4%p로 가장 크게 증가

표 7. 고령층(55~79세) 취업자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1.3		2012.2		2012.3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증감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전체		4,652	47.2	4,620	44.6	4,983	47.9	331	0.7p
성별	남자	2,826	61.7	2,817	58.3	2,987	61.6	161	-0.1p
	여자	1,826	34.6	1,803	32.6	1,995	36.0	170	1.4p
학력	중졸 이하	2,838	44.2	2,613	40.0	2,937	44.9	98	0.7p
	고졸	1,303	53.1	1,415	51.7	1,464	52.8	161	-0.3p
	전문대졸	71	57.1	103	61.1	98	59.5	28	2.4p
	대졸 이상	440	51.1	489	52.9	484	52.4	44	1.3p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고령층 임금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 비임금근로자는 4.1% 증가
  -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2%, 15.5%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12.4% 감소
  -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가 5% 증가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0.5% 감소

표 8. 고령층(55~79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취업시간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2011.3		2012.2		2012.3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4,652	100.0	4,620	100.0	4,983	100.0	331	6.6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2,332	50.1	2,366	51.2	2,564	51.5	232	9.1
	-상용근로자	955	20.5	1,083	23.4	1,085	21.8	130	12.0
	-임시근로자	865	18.6	873	18.9	1,024	20.6	159	15.5
	-일용근로자	512	11.0	411	8.9	455	9.1	-57	-12.4
	비임금근로자	2,320	49.9	2,254	48.8	2,418	48.5	98	4.1
	-자영업자	1,920	41.3	1,918	41.5	2,020	40.5	100	5.0
	-무급가족 종사자	400	8.6	336	7.3	398	8.0	-2	-0.5
취업 시간 대별	36시간 미만	1,202	25.8	1,151	24.9	1,253	25.1	51	4.1
	36시간 이상	3,391	72.9	3,345	72.4	3,644	73.1	253	6.9
	일시휴직	59	1.3	125	2.7	86	1.7	26	30.8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실업자는 남녀 모두 감소

- 성별 실업자는 남자는 57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 2천 명 감소하였고, 여자는 36만 9천 명으로 5만 6천 명 감소
  - 실업률은 남자 3.9%, 여자 3.5%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5%p, 0.6%p 감소
- 연령별 실업자 규모는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였는데, 30대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4만 5천 명이 감소하여 가장 크게 감소
  - 실업률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 특히 20대가 1%p 감소로 가장 두드러짐.
- 학력별 실업자 규모는 중졸 이하에서 전년 동월 대비 1만 5천 명, 고졸에서 7만 3천 명, 전문대졸에서 1만 8천 명, 대졸 이상에서 2만 2천 명 감소
  - 실업률은 중졸 이하에서 전년 동월 대비 0.2%p, 고졸에서 0.7%p, 전문대졸에서 0.9%p, 대졸 이상에서 0.5%p 감소

표 9. 실업자와 실업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1.3		2012.2		2012.3				증감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증감		증감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전체	1,073	4.3	1,042	4.2	945	3.7	-128	-0.6p	-13.5	
성별	남자	647	4.4	598	4.1	575	3.9	-72	-0.5p	-12.5
	여자	425	4.1	445	4.4	369	3.5	-56	-0.6p	-15.2
연령	15~29세	397	9.5	350	8.3	347	8.3	-50	-1.2p	-14.4
	-15~19세	27	11.4	24	9.2	20	9.2	-7	-2.2p	-35.0
	-20~29세	369	9.3	326	8.3	327	8.3	-42	-1.0p	-12.8
	30~39세	247	4.1	202	3.4	202	3.4	-45	-0.7p	-22.3
	40~49세	176	2.6	175	2.6	161	2.4	-15	-0.2p	-9.3
	50~59세	142	2.8	132	2.5	134	2.5	-8	-0.3p	-6.0
	60세 이상	110	3.9	184	6.7	101	3.4	-9	-0.5p	-8.9
학력	중졸 이하	174	3.5	242	5.3	159	3.3	-15	-0.2p	-9.4
	고졸	480	4.8	411	4.1	407	4.1	-73	-0.7p	-17.9
	전문대졸	168	5.3	155	4.6	150	4.4	-18	-0.9p	-12.0
	대졸 이상	251	3.7	235	3.4	229	3.2	-22	-0.5p	-9.6

자료: 통계청(2012.4), 「2012년 3월 고용동향」.



- 청년층(15~19세) 실업자는 34만 7천 명, 실업률은 8.3%(전년 동월 대비 1.2%p 감소)
  - 남자 실업률은 9.8%로 전년 동월 대비 1.6%p 감소하였고, 여자는 7.0%로 0.7%p 감소

표 10. 청년층(15~29세) 실업자와 실업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1.3		2012.2		2012.3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증감		증감률
								실업자	실업률	
	전체	397	9.5	350	8.3	347	8.3	-50	-1.2p	-14.4
성별	남자	230	11.4	177	8.7	195	9.8	-35	-1.6p	-17.9
	여자	167	7.7	173	8.0	153	7.0	-14	-0.7p	-9.2
학력	중졸 이하	6	7.6	6	6.8	9	9.5	3	1.9p	31.8
	고졸	162	9.7	146	8.2	132	8.2	-31	-1.5p	-23.2
	전문대졸	91	8.3	87	7.9	88	7.7	-3	-0.5p	-3.6
	대졸 이상	137	10.3	111	8.9	118	9.0	-18	-1.3p	-15.6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고령층(55~79세) 실업자는 15만 6천 명, 실업률은 3%(전년 동월 대비 0.3%p 감소)
  - 남자 실업률은 3.5%로 전년 동월 대비 0.1%p 감소하였고, 여자는 2.3%로 0.7%p 감소

표 11. 고령층(55~79세) 실업자와 실업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1.3		2012.2		2012.3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증감		증감률	
							실업자	실업률		
전체	162	3.4	225	4.6	156	3.0	-6	-0.3p	-3.9	
성별	남자	106	3.6	127	4.3	109	3.5	4	-0.1p	3.4
	여자	57	3.0	97	5.1	47	2.3	-10	-0.7p	-21.0
학력	중졸 이하	105	3.6	159	5.7	93	3.1	-12	-0.5p	-13.0
	고졸	47	3.5	50	3.4	47	3.1	0	-0.4p	0.3
	전문대졸	1	0.8	2	2.3	2	2.4	2	1.6p	77.4
	대졸 이상	9	2.0	14	2.7	13	2.6	4	0.6p	31.3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만 6천 명 증가

- 활동 상태별로는 가사(16만 7천 명), 쉬었음(12만 9천 명), 연로(9만 1천 명), 정규 교육기관 통학(1만 2천 명), 취업준비(8천 명) 등에서 증가
- 반면,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4만 6천 명), 진학준비(3만 3천 명), 육아(9천 명) 등에서 감소
- 구직단념자는 22만 명에서 20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2천 명 감소

표 12. 활동 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2011,3		2012,2		2012,3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15,999	100.0	16,543	100.0	16,205	100.0	206	1.3
육아	1,473	9.2	1,512	9.1	1,465	9.0	-9	-0.6
가사	5,895	36.8	6,195	37.4	6,062	37.4	167	2.7
정규 교육기관 통학	3,937	24.6	3,758	22.7	3,949	24.4	12	0.3
입시학원 통학	89	0.6	51	0.3	80	0.5	-9	-10.8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236	1.5	189	1.1	190	1.2	-46	-24.0
취업준비	380	2.4	365	2.2	387	2.4	8	2.0
진학준비	144	0.9	249	1.5	111	0.7	-33	-30.1
연로	1,627	10.2	1,732	10.5	1,718	10.6	91	5.3
쉬었음	1,531	9.6	1,914	11.6	1,659	10.2	129	7.8
기타	688	4.3	577	3.5	584	3.6	-105	-17.9
구직단념자	220	1.4	182	1.1	208	1.3	-12	-5.8

주: 1) 기타: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 준비 등을 포함함.

2)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 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없었던 사람을 말함.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536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 7천 명 감소**

- 쉬었음이 4만 5천 명, 취업준비가 5천 명 증가한 반면, 육아(4만 7천 명),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3만 7천 명), 진학준비(3만 명) 등에서 감소
- 구직단념자는 5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천 명 증가

표 13. 활동 상태별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 명, %, 전년 동월 대비)

	2011.3		2012.2		2012.3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전체	5,439	100.0	5,327	100.0	5,362	100.0	-77	-1.4
육아	290	5.3	242	4.6	243	4.5	-47	-19.5
가사	130	2.4	127	2.4	118	2.2	-12	-9.8
정규 교육기관 통학	3,895	71.6	3,729	70.0	3,906	72.8	11	0.3
입시학원 통학	88	1.6	51	1.0	80	1.5	-8	-10.2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175	3.2	134	2.5	138	2.6	-37	-26.9
취업준비	282	5.2	269	5.0	287	5.3	5	1.8
진학준비	138	2.5	243	4.6	108	2.0	-30	-27.9
쉬었음	294	5.4	404	7.6	339	6.3	45	13.2
기타	145	2.7	127	2.4	142	2.7	-3	-2.2
구직단념자	51	0.9	47	0.9	52	1.0	1	2.3

주: 1) 기타: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 준비 등을 포함함.

2)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 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없었던 사람을 말함.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를 성별, 학력별로 세분하여 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고졸 이하의 경우 남자는 81.6%, 여자는 81.5%가 정규 교육기관 통학
- 대졸 이상에서 남자는 취업준비(46.5%)와 쉬었음(22.8%)의 비중이 높고, 여자는 육아(26.9%)와 취업준비(23.3%), 쉬었음(18.5%)의 비중이 높음.

표 14.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별, 학력별 활동 상태(2012. 3)

(단위: 천 명, %)

	남자				여자				계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전체	2,526	100.0	194	100.0	2,197	100.0	445	100.0	5,362
육아	0	0.0	0	0.0	123	5.6	120	26.9	243
가사	2	0.1	0	0.0	67	3.1	49	11.0	118
정규 교육기관 통학	2,061	81.6	22	11.4	1,791	81.5	32	7.2	3,906
입시학원 통학	44	1.7	1	0.6	35	1.6	0	0.0	80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42	1.7	24	12.2	40	1.8	32	7.3	138
취업준비	64	2.5	90	46.5	29	1.3	104	23.3	287
진학준비	58	2.3	4	1.9	34	1.5	13	3.0	108
쉬었음	150	5.9	44	22.8	63	2.8	82	18.5	339
기타	105	4.1	9	4.5	16	0.7	13	2.9	142
구직단념자	12	0.5	16	8.2	10	0.4	14	3.1	52

주: 1) 기타: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결혼 준비 등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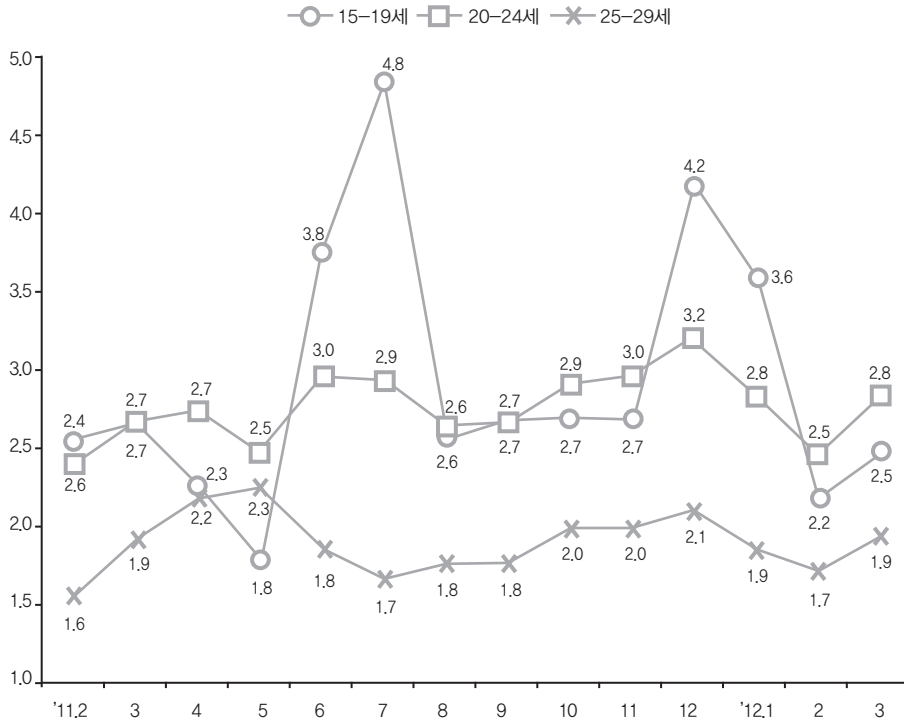
2)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없었던 사람을 말함.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변화 없음.

-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은 2012년 3월 현재 20대 초반(20~24세)은 2.8, 20대 후반(25~29세)은 1.9로 2011년 3월의 2.7, 1.9와 차이 없음.

그림 3.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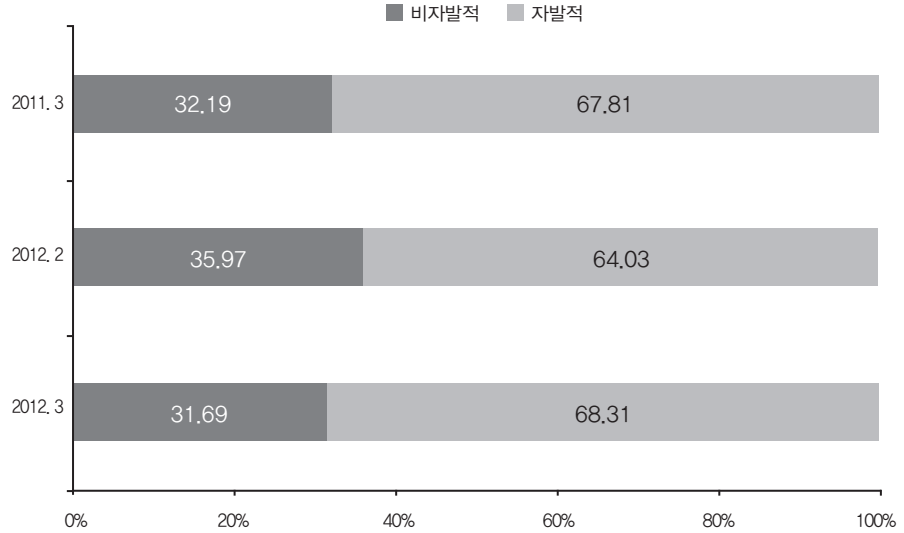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청년층(15~29세)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는 감소

- 청년층 단시간 근로자들 중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단시간 근로하는 비율은 31.69%로 전년 동월 대비 0.5%p 감소

그림 4. 단시간 근로의 이유



주: 비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 평소 일거리가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는 경우, 사업부진·조업중단으로 인하여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외는 자발적으로 단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정의함.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 증가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취업자는 49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1천 명 증가
  -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27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천 명 증가, 여자는 21만 2천 명으로 6천 명 증가
  - 재학 중인 학력별로는 전문대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취업자는 13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천 명 감소한 반면,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취업자는 32만 2천 명으로 1만 8천 명 증가
- 고용률은 10.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증가
  -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10.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증가, 여자는 10%로 0.4%p 증가
  - 재학 중인 학력별로는 전문대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고용률은

23%로 전년 동월 대비 1.9%p 감소한 반면,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고용률은 18.3%로 0.9%p 증가

표 15. 재학 혹은 휴학 중 청년층(15~29세) 취업자와 고용률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1.3		2012.2		2012.3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증감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전체		479	10.2	484	10.5	490	10.4	11	0.2p
성별	남자	274	10.7	289	11.5	279	10.8	5	0.1p
	여자	205	9.6	196	9.3	212	10.0	6	0.4p
학력	전문대	147	24.9	139	31.0	139	23.0	-8	-1.9p
	대학교	304	17.4	299	19.9	322	18.3	18	0.9p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실업률 감소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1.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증가
  - 성별로 남자는 11.9%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증가, 여자는 10.8%로 0.4%p 증가
  - 전문대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5%로 전년 동월 대비 3.2%p 감소한 반면, 대학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청년층은 20%로 1.1%p 증가
- 현재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청년층의 실업률은 8.4%로 전년 동월 대비 0.5%p 감소
  - 성별로 남자는 8.7%, 여자는 7.9%로 모두 각각 0.5%p, 0.3%p 감소
  - 학력별로는 현재 전문대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청년층의 실업률이 8.6%로 전년 동월 대비 2.8%p 감소한 반면, 현재 대학 재학 혹은 휴학 중인 청년층의 실업률은 10.3%로 2.5%p 증가



표 16. 재학 혹은 휴학 중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단위: %, %p, 전년 동월 대비)

	2011.3		2012.2		2012.3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증감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전체	11.2	8.8	11.6	9.2	11.4	8.4	0.2p	-0.5p	
성별	남자	11.8	9.3	12.5	7.8	11.9	8.7	0.1p	-0.5p
	여자	10.4	8.3	10.5	11.2	10.8	7.9	0.4p	-0.3p
학력	전문대	28.2	11.4	33.8	8.3	25.0	8.6	-3.2p	-2.8p
	대학교	18.9	7.8	22.0	9.4	20.0	10.3	1.1p	2.5p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유휴청년층 규모와 유휴화율은 감소

- 유휴청년층은 178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 명이 감소
  - 성별로는 남녀 모두 유휴인원 감소
  -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감소한 반면, 10대(15~19세)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3천 명 증가
  -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를 제외한 모든 학력계층에서 감소한 반면, 중졸 이하는 전년 동월 대비 2천 명 증가
- 유휴화율은 18.8%로 전년 동월 대비 1.3%p 감소
  - 성별로는 남녀 모두 유휴화율이 감소
  - 연령별로는 10대(15~19세)만 전년 동월 대비 유휴화율이 0.2%p 증가,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만 유휴화율이 0.1%p 증가

표 17. 청년층(15~29세) 유휴화 인원 수와 유휴화율

(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 대비)

	2011.3		2012.2		2012.3				
	인원수	유휴화율	인원수	유휴화율	인원수	유휴화율	증감		
							인원수	유휴화율	
전체	1,928	20.0	1,924	20.2	1,788	18.8	-140	-1.3p	
성별	남자	881	18.6	907	19.2	824	17.5	-57	-1.1p
	여자	1,047	21.4	1,017	21.1	964	20.0	-83	-1.4p
연령별	15~19세	257	7.7	272	8.2	260	7.9	3	0.2p
	20~24세	674	25.3	754	27.2	667	24.0	-7	-1.3p
	25~29세	997	27.5	898	25.9	861	25.0	-136	-2.6p
학력	중졸 이하	103	4.2	96	4.1	105	4.3	2	0.1p
	고졸	969	23.8	1,043	24.7	894	22.4	-75	-1.5p
	전문대졸	368	26.6	342	25.2	351	25.0	-17	-1.6p
	대졸 이상	488	28.2	443	27.0	437	25.9	-50	-2.3p

주: 유휴화 인원은 전체 청년인구에서 현재 취업자와 정규학교를 통학하고 있는 청년층을 제외한 인원으로 정의함.  
 자료: 통계청(각 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KOSIS

(작성: 양정승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